

복음서의 농촌선교적 이해

나 요 섭(교수, 영남신학대학교)

삶의 공간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役事)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학의 대상이 된다. 옛날 예수가 살았던 때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공간은 당연히 신학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예수의 가르침을 이어 받은 초대교회도 그들이 살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는 신학을 정립해 나갔다. 이러한 모습이 복음서와 그 이전의 글에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면서, 오늘날 신학은 바로 우리가 사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나가는 것도 포함하여야 함을 필자는 말하려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실제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신앙과 신학을 하게 될 것이다.

복음서 이전의 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개의 복음서는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청중들을 위하여 쓰여졌다. 이 복음서들이 쓰여지기 전에 여러 글들이 있었음은 눅 1:1-3

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예수의 지상 사역이 있었고, 이를 보고 말로 전한 사도들이 있었으며, 이를 글로 적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 글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저자 누가도 누가복음을 적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이전에 적혀진 글들은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최소한 두 개의 글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신약성경에 들어와 있는 마가복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이전에 쓰여진 ‘예수 첫글’ Q라고 불리우는 것이다.¹⁾ 그러므로 삶의 공간에 대한 신학적 탐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는 Q의 것을 다름으로써 시작하고자 한다.

예수 당시와 그의 제자들에 의한 최초 제자들 당시 유대 사회는 주로 농업과 상업이 기간 산업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기에 예수는 농업에 관한 문제를 그의 가르침 가운데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청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있어 그들에게 친숙한 당시 농업 환경을 예로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작업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본문들에 대해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 삶의 공간 특히 농업과 연관되어 신학함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었으며 이를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할 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Q는 농업환경에 대하여 익숙한 모습을 보여준다.²⁾ 예

1) 이는 주후 40-50년에 쓰여진 글로 학자들은 추정한다. 이는 주로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공히 나타나는 본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가복음 역시 이 글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필자의 소논문 “마가의 Q 사용에 대한 연구,” 『신약성서의 올바른 이해』 박수암박사회갑기념논문집 (서울: 성지출판사, 2000), 23-41을 참조하라.

2) 여기서 Q 3:9이란 눅 3:9과 이에 병행되는 마태복음 본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마 3:10을 의미한다. 이 때 숫자는 누가복음의 장과 절 수를 따라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의 본문이 꼭 Q의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누가복음의 본문과 마태복음의 본문을 잘 비교 연구해서 이전의 본문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너무 전문

를 들면 Q 3:9은 종말에 대해 언급하면서,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사이에 심판이 있을 것을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 가르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점에 관점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무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면서 아마도 유대인들을 원래 의미했고 그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점에 관심을 가졌던 듯하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의지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를 보이느냐가 주된 관심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자연의 현상을 통해 신학하는 모습은 Q 12:24, 27-28에서도 발견된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먹이시고 또한 들의 꽃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마귀와 들에 핀 꽃은 어느 누구나 도시를 벗어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보살핌을 Q에 소개된 예수는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Q는 신학화 한다.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신학화하는 작업은 Q 가운데서도 약간 늦게 작성된 여러 본문들 가운데서도 잘 나타난다. 먼저 Q 3:17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내는 한 농부의 모습을 다룬다. 이는 예수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으로써 앞에서 언급된 세례 요한의 설교와 약간 그 내용을 달리 한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하는 문제와는 달리 이미 알곡과 가라지는 성분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던져질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늦게나마 어떤 자세와 행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신학적

적인 작업이기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다.

변이가 나타남은 나름대로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여기서는 이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예수도 이 세상 농촌 생활 가운데서도 일상 가운데 발견되는 현상을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를 서술함으로써 신학화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학화 작업은 Q 13:18-21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밭에 겨자씨를 심은 한 농부와 가루 서말 안에 누룩을 심은 한 여인의 행동을 소개하면서 이를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킨다. 이들은 모두 심겨졌다는 점과 사람이 잘 알지 못하지만 자라난다는 점과 또한 처음의 것과 나중의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그 공통점으로 가진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하려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들어와 심겨져 있으며, 그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으며, 더욱이 그 나라는 엄청나게 크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자연의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요 바로 신학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하여 조태연 교수는

오히려 신학의 소재가 주후 1세기 팔레스타인의 시골 환경이며 농경의 생활이며 그리고 자연이며 그 과정이다.... 그 초기 예수운동의 신학은 곧 '자연신학'인 것이다. 신학함이란 피안의 세계에 있는 초인적, 초월적 존재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신학함이란 내 곁에 있어 나를 연루시킨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기획이다. 신학함이란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자연과 나의 일상사 그리고 평범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사건과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신다. 인간의 모든 인위적, 작위적, 문화적 노력(culture)은 오히려 자연(nature)을 거스를 뿐이고 하나님을 거역할 따름이다.³⁾

3) 조태연, 『예수운동: 그리스도교의 기원의 탐구』 기독교사상시리즈 4

비록 신학함에 있어 초월적인 면을 간과하는 듯한 모습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추구하고 발견하려 하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점은 높이 사야 될 것이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Q가 적힌 후 약 20-30년 후인 주후 70년에 적힌 글이다. 그렇기에 Q가 시작한 신학적 작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4장의 비유들이다. 그는 Q에서 전해져 온 겨자씨 비유를 받아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몰래 자라나는 식물의 비유 등 농경 산업과 연관된 비유들을 더하고, 또한 등불의 비유를 첨가해 서술하고자 했다. 이는 4:11에 서술된 바와 같이 이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분명 신학화 작업을 강화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몰래 자라나는 식물에 대한 비유를 더했다는 점에서 예수의 농경적 모습을 더욱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통해 볼 때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받았던 교회는 농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을 받았던 교회도 당시 자신들의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신학의 방법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마가복음은 더 나가서 예수의 사역을 당시 농촌 상황에 유비시켜 설명한다. 12:1-9에는 당시 농촌 경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악한 농군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 자기의 땅을 소작인들에게 위탁시켜 놓고 타국에 가서 지내면서 추수 때가 되면 종을 보내 소작료를 받아내는 당시 상황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모습을 그려준다. 이 비유에 잘 반영되어 있듯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의 종들은 선지자들이요 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 상에서의 순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319-320.

를 풍유적으로 (allegorically) 그리고 있다. 이로써 그 포도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을 그리고 있는데, 이러한 유비적 서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서술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와 그 이전 시대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바로 신학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라 할 것이다.

위의 예들을 통해 볼 때 마가복음 저자도 자기가 바라보고 경험하는 자연과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술하려 하였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려보려 했다. 물론 이는 예수가 전한 가르침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한다. 여기서 다시 설명되어야 할 것은 그 많은 예수의 말씀들 가운데 이러한 서술들을 골라 사용할 때 마가복음 저자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비유들을 소개한 이유는 바로 그가 처해 있던 상황과 현상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이론화하는 신학적 작업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이러한 신학적 작업은 마태복음에 의해서도 계속된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약 15년 후인 주후 85년경에 갈릴리 지역에서 적혀진 것으로 여겨진다. 마태복음 저자 역시 이전의 예수 전승을 받아 농경 사회의 모습을 통한 신학적 작업을 더욱 보강했다. 이는 그 복음서 안에 농업에 대한 비유가 더욱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먼저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으로부터 받은 몇 개의 비유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와 사악한 농군의 비유가

4) 이러한 의도를 잘 나타내는 구절로 요 20:30-31을 들 수 있는데, 많은 사역 가운데 일부러 몇 개만을 선택하여 서술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음을 반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저자도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속한다(13:3-9; 21:33-41). 전자는 하나님/하늘나라와 원래 마가복음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던 반면, 후자는 마태복음에 의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 또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농경적이며 일상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하늘나라를 소개한다(13:31-33).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첫글’ Q에서 처음 사용된 것인데, 마태복음은 이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포도원 농군의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비유 등 농경에 대한 비유를 더하고 있다(13:24-30, 36-43; 13:44; 20:1-16 참조). 이 모든 비유들은 하늘나라의 성격을 소개하는데 사용된 비유들으로써 농업환경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하늘나라를 더 많은 농경적 비유들을 사용하면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하늘나라가 에덴동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려는 것 때문이다.⁵⁾

이처럼 마태복음은 이전의 전승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당시 농경 사회의 특징을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서술하고 그의 나라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신앙을 확인하고 신학화하는 작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신학함의 방향이 여실히 보여진다.

누가복음

누가복음도 예수의 비유를 소개하기는 하지만 마태복음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복음서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등 농경적 환경을 보이는 비유들을 ‘예수첫글’ Q와 마가복음에서 받아 사용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발전시키지

5)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Return to the Garden of Eden: The Adamic Jesus and the Garden Kingdom in Matthew's Gospel*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and Iliff School of Theology, 1997)을 참조하라.

는 않고 오히려 여행하는 모습쪽으로 많이 소개한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으로 여행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비유로 소개한다. 또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역시 멀리 떠나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는 아들의 모습을 서술한다. 이 비유도 먼 나라에 가서 그러한 일을 저질렀음을 서술하는 점에서 여행 동기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서술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난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지은 사도행전도 보면 16장 이후로 ‘우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바울의 동역자로 묘사한다(16:11-18; 20:5-15; 21:1-18; 27:1-28:16 참조). 이는 선교 여행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아마도 지중해 연안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추정한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합당하다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와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 중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거나 흡사한 자료들을 모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자신의 상황과 연계시키면서 그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글로 남겨놓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누가복음 역시 예수에 대한 전기적 서술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학함

이상의 서술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교훈들은 오늘날 신학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더욱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학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고 이를 적용할 때 선교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를 주제적으로 서술해 보자.

먼저, 예수 이래로 복음서 기자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신학함이란 바로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

습을 찾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모습이다. 예수는 그가 살고 있던 환경 속에서 겨자씨의 모습을 통해, 포도원 운영을 통해, 또한 씨뿌리고 자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나라의 모습을 서술하려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세를 오늘날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모두 배워야 할 것이다. 신학함은 고급 학력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이를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더욱 접하기에 하나님을 발견할 기회를 더욱 가지게 된다. 이를 놓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이는 바로 농촌 생활 가운데서 이웃에게 선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예수의 부활 승천이래로 그의 말씀은 잘 보존되고 전승되어 왔다. 이로써 후대의 제자들도 그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교훈을 얻었으며 그들의 신앙을 위한 지침으로 또한 모범으로 삼고 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그들의 후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또한 더하여 새롭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신앙의 전승을 더 쌓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그들은 복음서라는 글을 남겼고, 그 이후에도 많은 서적들을 남김으로써 더 많은 신앙적 고백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발견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를 그냥 말로써 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글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고 생각하게 하면서 비교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농촌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이것이 바로 선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배운 것이 별로 없다고 쑥스러워 하고 포기한다면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서로 비

숫할 터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웃들보다 조금은 앞선 상태에서 글을 쓰고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계속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는 작업이다. 예수의 말씀들이 복음서로 적히면서 계속 전해졌기에 그의 말씀은 오늘날까지 남아있고, 또한 그 사이의 여러 제자들이 쓴 신앙고백적 글들이 있기에 더 많은 신앙적 가르침이 전해져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농촌과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옛것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내는 정신이 바로 복음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삶의 자세다. 이러한 삶을 살아, 남보다 더 앞서갈 때 이웃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도 배우려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러한 삶이 농촌에서의 선교로 열매맺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위의 논의를 통해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한국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좀 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이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전문가들만 할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되고 경험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성숙하고 자립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요, 자라나는 노력 속에 느끼는 고통을 이기고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 능력을 다해 신학하고 신앙하는 모습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